폭우에 놀란 정부?

지리산 다목적댐 건설 추진…주민들 반대

올 장마 피해를 계기로 지리산에 다목적댐 건설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간 논란이 불 붙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수해의 원인 중 하나가 충분한 댐 시설의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군 지리산 자락 두 곳에 댐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는 상습 수해지역인 남강 하류 일대를 줄이고 부산지역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남강댐 상류에 댐 건설 후보지를 확정키로 하고 남강댐에서 74㎞ 상류(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의 문정댐(일명 마천댐)과 이보다 12㎞ 위의 전북 남원군 산내댐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문정댐과 산내댐의 저수 용량은 각 9천700만t과 4천800만t 규모다.

건교부는 이 두 곳 중 최소 한 곳은 후보지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정부의 댐 추진 방침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지리산 생명연대' 측은 "댐을 짓는 돈으로 메콩강처럼 수변구역 농경지를 매입, 홍수림으로 전환해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게 두고 다른 때에는 숲으로 가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장마후 일사·열사병 등 조심"

전남소방본부 주의보

전남도 소방본부는 20일 장마 후 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 손상 질병' 주의보를 내렸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여름철 폭염기간인 7~8월을 전후해 발생된 '열 손상 환자'는 도내 58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2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명은 사망하고 237명은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열 손상 질병은 햇볕에 과다노출돼 탈진을 불러오는 일사병, 강한 열에 노출돼 전신무력증 등을 수반하는 열사병, 땀을 많이 흘려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열경련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폭염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열 손상 환자'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이 시간대에 농삿일, 체력소모가 많은 국토대장정 행군, 격렬한 운동, 술을 마신 후 자동차 안이나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탈수, 만성질환자 악화, 열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염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야 한다. 유사증세를 보이는 경우 즉시 119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증심사입구역' 명칭 변경

'학동·증심사입구역'으로

광주 지하철 '증심사입구역'의 명칭이 '학동·증심사입구역'으로 바뀐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20일 역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증심사입구역'의 명칭을 '학동·증심사입구역'으로 변경키로 관련 단체들간의 합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서 19일 학계과 시민단체·언론·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역명변경 심사위원회'에서 '학동·증심사입구역' 안을 제시했으며, 종교계·주민자치위 등 관련 단체들이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역명은 조만간 시의 지명위원회 등을 거쳐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비상구 없는' 광주 고시원들

불나면 밧줄타고 탈출할 판

200평에 방 80개·비좁은 복도…대형화재 우려

광주 고시원의 '열악한' 소방시설은 제 2의 '서울 고시원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5년 전 학원이었던 A고시원. 5층짜리 건물 중 4~5층이 고시원이다. 1층은 호프집, 2층은 PC방, 3층은 당구장이다.

이곳은 200평 남짓(4~5층 포함) 한 공간에 80여 개의 객실이 '더덕더덕' 붙어있었다. 복도와 샤워실, 관리실을 빼면 객실당 1~2평 남짓한 공간. '판사'와 '검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최소한의 소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이곳에서 청춘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복도의 넓이는 고작 75cm. 성인 2명이 간신히 어깨를 맞대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다. 비상구도 없다. 유일한 출입구인 정문에서 불이 난다면, 고시생들은 '완강기'(지름 3mm 이상)라고 불리는 밧줄을 타고 5층 10m 높이에서 탈출해야 한다.

B고시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바닥은 최신 우드룸 장판을 깔았지만, 탈출구는 정문 밖에 없다. 각 층의 10~11객실(총 5층) 고시생들은 입구가 화재로 막힐 경우, 밧줄을 타고 뛰어내려야만 할 처지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4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주대상으로 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업주들의 반발이 심해 오는 2007년 6월 발효할 예정이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시원이 출입문 이외의 비상문(가로 75cm·세로 150cm)을 확보해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화기를 보행거리인 20m 이내에 설치할 것'(제8조)과 '부득이하게 방음시설을 설치한 벽에 대해서는 방염제(유독 가스 흡입 물질)를 설치하라'(제12조)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광주의 대부분 고시원이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세한 고시원 업주들이 개조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아직까지 개정된 규정을 충족시키는 곳이 많지 않다"면서 "단계적인 홍보를 통해 시설을 고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현재 광주의 고시원은 모두 80곳으로, 전남대와 조선대가 있는 북구·동구가 각 50곳과 27곳이며 ▲남구 2곳 ▲광산구 1곳 등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고시원은 어떤 곳

1~2평 월세방서 미래 법관 꿈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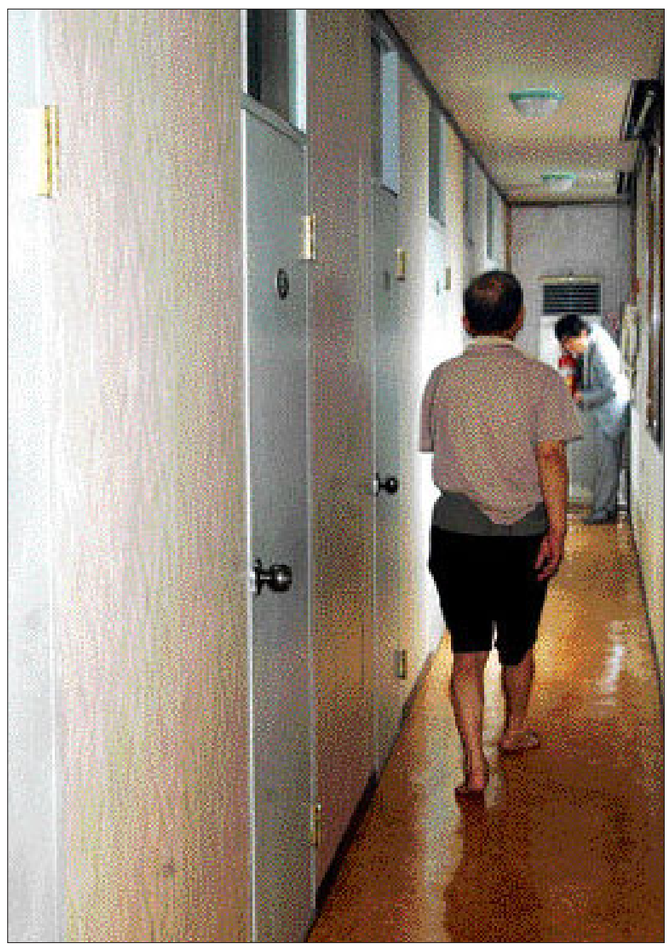
광주 고시원에 기거하는 사람들은 서울과 다르다. 서울에서는 싼값에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용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면, 광주에서는 지방출신 자취생이나 고시준비생이 대부분이다.

고시원 월세는 15만~20만원으로 서울에 비해 큰 차이는 없다. 대부분 1~2평 남짓한 방에 나무로 된 책상과 침대가 제공된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시설이다.

3~4년 전에는 광주에도 원룸 형태의 '최신' 고시원이 등장했다. 기존의 고시원보다 넓은 2평 이상의 방이며, 가격도 20만원 이상. 조용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과 냉·난방시설까지 완비돼 있다.

하지만 고시원의 공통점은 좁은 입구와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이다. 업주들이 보다 많은 월세를 받기 위해 좁고 길게 늘어져 있는 복도에 방을 계속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구조는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성인 2명이 간신히 어깨를 맞대고 지나갈 수 있는 광주 한 고시원의 좁은 복도. 유일한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날 경우 고시생들은 밧줄(완강기)을 타고 탈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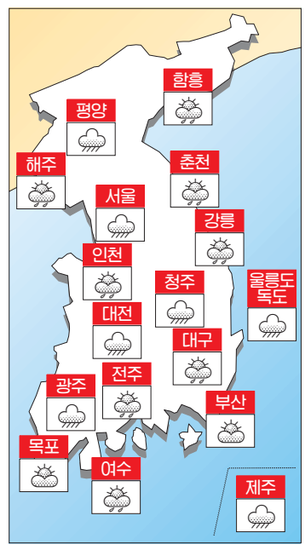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언제쯤 햇볕 볼까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7월 21일 (음 6월 26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0~27℃
목 포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0~26℃
여 수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19~26℃
완 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19~26℃
구 례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19~28℃
해 남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19~27℃
장 흥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0~27℃
고 흥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19~27℃
순 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19~28℃
영 광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0~27℃
진 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1~27℃
전 주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1~27℃
남 원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0~27℃
정 읍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1~2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10:38 23:57 썰물 04:26 16:17
여 수 밀물 05:54 18:58 썰물 00:16 12:01

▲해뜸 05:33 ▲해짐 19:44 ▲달뜸 01:27 ▲달짐 16:4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날 씨						
최저/최고	22/27	23/26	23/28	23/31	23/31	24/32

광주 교통카드 시스템 전면개편

9월 준공영제 도입 맞춰

광주시내 교통카드 시스템이 오는 9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광주시는 20일 "버스조합·교통카드 회사 등과 함께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을 개발해 준공영제 실시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카드 한장으로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등의 무료 환승이 가능하고,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또 인터넷·휴대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정류장 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버스도착 예정시간을 알 수 있고, 버스 배차간격과 운행간격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현행 교통카드시스템은 교통카드 오류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시스템 용량이 적어 단순 요금결제 수준에 머물고 있고, 마을버스와 호환도 되지 않아 불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금주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카드 시스템을 바꾸면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수익금 관리와 일부 경영 등을 맡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전남 상당수 학교 여름철 급식사고 위험

전남지역 상당수 학교가 식중독 등 여름철 급식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급식을 하고 있는 초(477곳)·중(154곳)·고(148곳) 779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재료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을 씻고 손질하는 전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가 336곳으로 43.1%에 달했다. 조리실 내 냉방시설(에어컨)이 없는 학교는 무려 692곳으로 전체 88.8%나 됐다.

조리된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냉장고가 없는 학교도 587곳에 달했고, 식기 세척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473곳, 조리된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보온고와 다기능 오븐기가 없는 학교는 대부분인 741곳이나 됐다.

특히 전체 학교 중 197곳은 식재료 검수에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